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학생과 영어교사의 인식 연구

이영이*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 V. 결론

I. 서론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의 영어수업은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이 강조됨에 따라 영어 말하기 능력을 그 어느 때 보다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비원어민교사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 현장에서 요구한다. 이것은 영어교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며 과거의 문법과 독해 위주의 교수법에서 이제는 교사 자신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 역시 영어 공교육을 통해 세계 속의 시민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영어사용 능력에 있어서 학생들은 여전히 원어민교사를 선호하며 원어민교사에게 영어를 배우길 원하고 있다. 원어민교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사는 영어사용에 직관적인 지식은 물론 자연스런 발음과 억양을 가지고 있어, 비 원어민교사가 아무리 뛰어난 학습 전략을 갖고 있다 해도 영어교육에 있어서 원어민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김신혜(2005)는 성공적인 영어교사의 자질로 기술적인 지식, 교수 학습 능력, 대인관계 기술, 인격적인 면 외에도 인성과 사명감을 들었다. 그리고 교사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우수한 교사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Brown(2001)은 기술 지식, 교수 능력, 상호작용, 기타로 나누고, 여기에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어 교사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즉 교사는 전반적인 역할과 감독 및 조절자, 학습자료 제공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해당 학생들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영어교사는 언어 구사력을 갖추고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며, 수업 운영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육평가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영어교사에게는 무엇보다도 인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교사와 원어민교사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효과적인 영어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교사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자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김은주(2002), 권미분(2007), 방영주(2007), 임여진·김영상(2007)등을 들 수 있는데 원어민교사와 학생 또는 한국인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조사한 연구들이었다. 이 연구들은 교사와 학생의 제한된 집단을 조사하였고, 또 교사 자질에 대한 결과만 분석한 것으로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단지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낸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의 변인을 세분화시키고, 표본추출도 초·중·고·대학생으로 다양화했으며, 교사도 초·중·고·대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로 다양화시켰다. 이 연구를 통해 원어민교사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원어민교사에 대한 선호도와 영어교사의 자질을 알아보고 이들

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영어학습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국외 선행연구

국외에서는 원어민교사와 비원어민교사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원어민교사와 비원어민교사를 대상으로 다른 10여 편의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원어민교사와 비원어민교사의 역할과 자질의 인식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원어민교사와 비원어민교사의 영어사용 능력을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다.

Samimy와 Brutt-Griffler(1999)는 교사의 자기인식 연구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교사의 우수성은 교사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교수기법, 학생의 여러 요인들이 우수한 교사를 결정짓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Moussu(2006)는 ESL 환경의 학생들은 원어민교사의 영어사용 능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학생과의 공감대 형성 및 학습의 이점 등으로 비원어민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더 나아가 2010년 연구에서도 교사의 역할은 Samimy와 Brutt-Griffler(1999)의 연구 결과처럼 교사의 언어능력보다 교사의 교수법, 학생의 여러 요인, 환경 요인 등이 우수한 교사를 결정짓는다고 인식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amimy와 Brutt-Griffler와 Moussu 모두 우수한 영어교사가 되는 조건을 영어사용 능력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교사는 학생과 환경 등 여러 요인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작용할 때, 비로소 우수한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원어민교사와 비원어민교사의 영어사용 능력을 비교 분석

연구들이 있다. Filho(2002), Mahboob(2004), Tang(1997) 연구의 공통점은 원어민과 비원어민교사의 인식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교사가 누구인가라는 측면보다는 두 교사의 영어사용 능력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원어민의 가장 큰 장점은 언어사용 능력이며, 학생들은 원어민교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말하기와 듣기, 발음 등을 배울 수 있고, 영어권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며, 또 소그룹 활동과 학습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원어민교사는 학습자에게 성공적인 제2언어 학습자로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문법과 읽기, 토플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원어민과 비원어민교사를 단지 장·단점이라는 측면에서만 고찰하여 서로를 보완해 주는 역할과 우수한 교사를 결정짓는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교사의 장점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만을 선호하지 않고, 두 교사 집단이 모두 중요하며 각자가 가진 장점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Medgyes(1994)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Pacek(2005)는 두 교사집단의 선호도가 교사의 자질과 열정,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원어민과 비원어민교사는 차이에 대한 인식과 자기 확신, 교사로서의 자질의 중요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교사의 우수성은 언어능력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며, 두 교사의 장점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상호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원어민교사의 자질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의 초·중·고·대학교마다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원어민수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들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원어민교사로서 자격을 갖추어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강화시켜야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국내 선행연구

원어민교사와 비원어민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김신혜, 2005; 박민정, 2006; Kim, 2007). Kim(2007)은 학생의 영어수준과 영어에 대한 친밀감, 교사의 교수기법과 노력하는 자세가 훌륭한 교사이며, 원어민교사와 비원어민교사 둘 다 좋은 교사라고 학생들은 인식하였다. 김신혜(2005)는 교사의 자기 인식을 통해 성공적인 교사라고 느낄 때는 학생들의 흥미유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 교사 자신의 꾸준하고 부단한 노력이라고 하였지만, 박민정(2006)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교사의 언어능력을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원어민교사와 비원어민교사의 자질에 관한 여러 편의 연구들도 있다 (김은주, 2002; 김창현, 2009; 권미분, 2007; 방영주, 2007; 이옥희, 2009; 임여진·김영상, 2007). 영어교사의 자질에 관한 연구에서 김은주(2002)는 기술적인 지식 영역, 수업과 관련된 기술 영역, 학생의 이해도 점검 및 평가 영역, 상호작용 기술 영역, 그리고 교사의 인성 영역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교사와 학생이 중요시 여기는 교사의 자질을 분석하였다. 다른 연구들도 이와 유사하다(권미분, 2007; 방영주, 2007; 임여진·김영상, 2007). 조사대상만 다를 뿐 내용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결과를 제시했으나, 표본수가 단순하고 제한된 그룹을 조사했을 뿐이다. 객관적인 설문 영역별 항목에서 교사와 학생 집단의 견해는 비교·분석하였지만, 분석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과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만 권미분(2007), 임여진·김영상(2007)이 기존의 연구와 비교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낸 정도이다. 이들 연구들은 단편적으로 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들이며, 종합적이고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림직한 원어민교사의 자질이란 무엇인지, 다양한 집단의 학생과 한국인교사와 원어민교사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

은 영어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집단의 변인을 세분화시키고 즉 성, 연령, 학교, 영어 학습기간, 영어권 국가의 체류경험, 본인의 영어능력에 대한 자신감, 경력, 국적, 학력에 따른 변인으로 구체화하여 조사를 할 것이며, 문항도 여러 변인들과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원어민교사의 자질에 대한 다양한 학생집단과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의 의견을 모두 살펴보고,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원어민교사의 자질과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조사는 원어민교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학생들이 만족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우리나라 영어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와 서울에 소재한 초·중·고·대학생 635명과 초·중·고·대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원어민교사 50명과 한국인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 응답자는 성, 연령, 학교, 학습기간, 영어권 국가의 체류경험 그리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 등의 변인을 고려하였고, 남학생이 367명, 여학생이 268명으로 남학생이 약간 많았다. 연령별로 13세 이하는 161명, 14-16세는 123명, 17-19세는 164명, 20세 이상은 185명이다.

한국인교사와 원어민교사 비중은 초등학교는 24명, 중학교는 23명, 고등학교는 28명, 대학교는 25명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어민교사의 국적은 캐나다 12명, 미국 30명, 뉴질랜드 1명, 영국 4명, 기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0%가 미국 국적을 가진 원어민교사들로 구성되어있다.

본 설문지를 제작하기 위해 원어민교사와 비원어민교사의 교수법 차이점에 대한 Medgyes(1999)와 Lasagabaster(2005), Brown(2001) 교사 평가지와 김은주(2002)의 연구를 참고했다. 특히 김은주(2002)의 설문지에서 제시된 항목 중 원어민교사의 자질에 적합한 문항들을 선택,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학생의 객관식 설문은 영어에 관한 지식 영역(1-8문항), 수업과 관련된 교수 기법 영역(9-15문항), 이해도 점검 및 평가 영역(16-18문항), 상호작용 기술 영역(19-21문항), 기타 영역(22-25문항)등, 총 다섯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은 일반특성 (6문항), 객관식 설문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객관식 설문은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리커트(Likert-type scale)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원어민에게 쓰기를 잘 배울 수 있다.’에 “찬성이면(1), 대체로 찬성(2), 보통(3), 대체로 반대(4), 반대이다(5)”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교사의 설문지는 바람직한 영어교육을 위한 교사가 인식하는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의 자질을 알아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되어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에게 배부되었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일반 특성 (5문항/원어민6문항), 객관식 설문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에는 응답자의 성, 연령, 교사 경력, 최종 학력, 근무 학교, 국적 등이 포함되었다. 객관식 설문은 교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으로 영어에 관한 지식 영역 (1-5문항), 수업과 관련된 교수 기법 영역 (6-13문항), 이해도 점검 및 평가 영역 (14-16문항), 상호작용 기술영역 (17-21문항) 등 총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식 설문은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Likert-type scale)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Knowledge of English structure and grammar’ 가 “매우 중요하면 (1), 중요 (2), 보통 (3), 별로 중요하지 않음 (4), 전혀 중요하지 않음 (5)”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생의 원어민 선호도와 한국인교사와 원어민교사 자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분석 방법으로는 응답자 일반 특성과 각 문항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영역간 신뢰도 분석, 문항 영역 각각에 대한 변인 간 차이는 t-test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원어민교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원어민교사 선호도와 교사들의 원어민교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했다.

1. 학생들은 어떤 영어 학습영역에서 원어민교사를 선호하는가?
2.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는 어떤 영어 학습 영역을 교사의 자질로 중요하게 인식하는가?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학생

(표4-1) 학생 - 5개 영역간 상관관계

	영어지식	수업과 관련된 교수 기법	이해도 점검 및 평가	상호작용 기술
수업과 관련된 교수 기법	.501			
이해도 점검 및 평가	.418	.578		
상호작용기술	.364	.575	.617	
기타	.387	.350	.344	.303

(표4-1)에서 영어지식, 수업과 관련된 교수 기법, 이해도 점검 및 평가, 상

호작용 기술, 기타 등 모든 영역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변수 간 모두 정의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영어지식과 수업과 관련된 교수 기법(.501), 이해도 점검 및 평가와 수업과 관련된 교수 기법(.578), 상호작용 기술과 이해도 점검 및 평가(.617), 기타와 영어지식 영역은(.387)로 나타났다. 5개 영역 신뢰도에서는 수업과 관련된 교수기법, 이해도 점검 및 평가, 상호작용 기술, 영어지식 영역에 대한 Cronbach의 알파는 0.647-0.802 수준으로 나타나 각 영역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영어지식 0.802, 수업과 관련된 교수 기법 0.770, 상호작용 기술 0.793으로 나왔다. 각 영역과 관련된 문항들의 신뢰도는 있었으나, 기타 영역은 문항들의 신뢰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타 영역은 여러 성격의 문항이 섞여있으므로 신뢰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학교별 선호도에서 고등학생은 발음과 생활 영어, 영어권 문화를 배우는데 원어민교사의 수업이 도움이 되며, 철저한 수업 준비와 다양한 자료 제공, 다양한 수업 방식, 학생 존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고등학생들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은 발음과 생활 영어, 영어권 문화를 배우는데 원어민 수업이 도움이 되며, 철저한 수업 준비와 다양한 자료 제공, 다양한 수업 방식, 학생 존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고등학생들은 원어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권미분(2009)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양질의 교수법과 좋은 교육이 제공되었을 때, 학생들의 원어민교사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초등학생은 원어민교사에 대해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원했고, 학생들도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많이 답답해했다. 중학생도 학습자의 모국어에 대한 이해와 학생을 통솔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들었다. 고등학생은 영어지식뿐 아니라 상호작용 기술, 교수 기법, 이해도 점검 및 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원어민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원어민교사의 발음과 듣기, 문화를 배울 수 있으며, 소그룹 활동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며, 확실한 피드백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한편 학생의

수준 차를 감안하여 수준별 수업과 역시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원어민교사라고 무조건 표준 발음과 문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검증된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각 그룹 별로 선호도는 조금씩 달랐으나, 공통점은 영어수업을 전부 영어로 진행할 때 영어를 가장 잘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원어민교사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선호도에서 학생들은 영어권 문화, 발음, 어휘, 듣기를 원어민교사에게 잘 배울 수 있다고 하였지만, 문법과 쓰기는 대체로 한국인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교사 선호도 문항은 영어지식 영역의 문항을 가장 선호하였다. Lasagabaster(2005)의 주장대로, 학생들은 발음(81.5%), 문화(71.1%) 그리고 말하기(64.5%)에서 원어민교사를 더 선호한다는 결과와 일치했다.

학생들의 원어민 선호도가 높은 문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어민에게 말하기를 더 잘 배울 수 있다(2.03).
2. 원어민에게 발음을 더 잘 배울 수 있다(2.03).
3. 원어민은 학생들이 응답을 잘했을 때 적절한 칭찬을 한다(2.11).
4. 원어민은 협동수업이나 소그룹 활동 선호한다(2.15).
5. 원어민에게 배울 때 영어 듣기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2.19).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면,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함'을 학생들은 모든 연구에서 교사의 자질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방영주(2007)와 임여진·김영상(2007)은 본 연구와 일치하게 영어에 관한 지식을 교사의 자질로 중시하였지만, 김은주(2002), 권미분(2007)은 수업과 관련된 교수기법이나 상호작용 기술영역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눈여겨 볼 것은, '원어민은 다양한 지식과 체계적인 영어 교수법 가

지고 있다.’는 문항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원어민교사들은 교육학이나 언어 교육학 또는 언어학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것은 원어민교사 자격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현직에 있는 원어민교사도 연수나 세미나를 통해 재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한 홍성심·정양수(2006)의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 전부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할 때 영어를 가장 잘 배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 답답해했으며, 원어민교사도 한국어 습득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전 학년에 걸쳐 고르게 답변을 했다. 즉 영어시간에 학생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박약우(2006)는 원어민교사의 단점으로 기본 소양과 전문성 부족을 꼽았으며, 대부분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으며 박준언·윤유진·최춘옥·최희경(2009)은 EPIK의 단위 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시도 교육청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과 채용의 전문성 확보와 채용 기준 합의가 요구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관리, 지원 등을 위해서는 EPIK,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의 역할 분담과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 방식의 다원화를 통해 적극적인 모집, 즉 재외 동포 및 해외 입양아를 영어교사로 적극 활용하며, 영어 공용어 국가의 우수 영어교사(영어교사 자격 소지자로 발음이 우수한 자) 활용을 검토하고, 다문화가정 영어 사용자, 국내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영어가 유창한 내국인 인적 자원을 ‘방과 후 학교 영어 강사’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9)¹⁾.

1) 국민의 영어 역량 제고를 위한 영어교육 혁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6.

성별 선호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원어민 선호도가 높았는데 특히 영어에 관한 지식 영역에서 여학생의 선호도가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문항별 성별 선호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원어민에게 발음을 더 잘 배울 수 있다(1.89).
2. 원어민에게 더 많은 어휘를 배울 수 있다(2.42).
3. 원어민에게 배울 때 읽기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2.45).
4. 원어민은 학생들이 응답을 잘했을 때 적절한 칭찬을 한다(2.03).

위의 성별 선호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원어민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권 국가의 체류경험별로 영어지식 영역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류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이상인 학생들이 영어지식 영역을 선호했다.

김창현(2009)의 영어권 국가 체류에 따른 원어민교사 선호도에서는 체류 경험이 원어민교사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체류경험이 길수록 영어지식 영역에서 원어민교사를 선호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영어사용과 문화가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Kim(2007)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비원어민교사는 여전히 의사소통 수업(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나 언어표현 기술(productive English language skills)보다 문법과 수용기술(receptive English language skills)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말하기와 쓰기는 취약하고, 듣기나 읽기는 유리하며, 학생들은 영어수업 시간에 L1, L2를 둘 다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는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박민정(2006)의 연구에서는 비원어민교사의 영어로 하는 수업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그 원인이 영어만 쓰는 수업 환경과 멀티미디어 수업자료

제시, 긴장감 완화 등이 중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원어민교사의 수업 효과를 더 높이 평가했으며 비원어민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원어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영어만 쓰는 교실과 멀티미디어 수업자료제시, 동기 부여 흥미로운 수업 내용, 외국어 학습자로서의 공감능력, 역할 모델 제시로 동기 부여한 점을 들었다.

영어능력에 대한 자신감별 원어민교사 선호도는 모든 영역에서 평균 차이가 났다. 그 중에서도 수업과 관련된 교수기법, 이해도 점검 및 평가, 상호작용 기술영역은 중급 이상이 원어민교사를 선호하고 있다. 즉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모든 영역에서 원어민교사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주장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문법을 제외한 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원어민교사 선호도가 높고, 원어민교사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이 원어민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인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교사 선호도를 알 수 있다(Medgyes, 1994; Lasagabaster & Sierra, 2005). 그러나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은 영어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언어 영역뿐 아니라 교수 기법, 평가, 상호작용 기술, 기타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원어민교사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진경애(2006)는 글로벌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 교육 혁신 방안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능력이나 자신감 향상에 원어민교사 수업이 큰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원어민교사와 교실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은 것 등이 문제라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어민교사의 수업 시수를 늘리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원어민교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는 세계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는 한 원어민과 같은 발음으로 영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문항은 비록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Pey(2003)는 타이완의 영어 학습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190

명의 태도 조사를 통해 앞으로 표준 영어의 절대성보다 각 나라에서는 지역 변이형 영어사용이 확대 될 것을 강조하며, 교사에게 보다 나은 영어 학습을 위하여 교수법이나 교재, 자료 등이 개발되어야 하고 교실 수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2. 교사

설문지의 영역별 신뢰도를 보기 위해 Cronbach 알파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어에 관한 지식 0.568, 수업과 관련된 교수 기법 0.691, 이해도 점검 및 평가 0.643, 상호작용 기술 0.746이다.

각 영역과 관련된 문항들의 응집력은 높지 않았으나,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 이해 문항을 제거한다면, Cronbach 알파 값을 좀 더 높일 수 있으나 중요한 문항이라 그대로 두었다. 만약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또 다른 문항을 추가한다면 신뢰도는 올라갈 수 있으나, 인위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영어지식 영역에서는 언어의 기능별 사용능력 구비, 정확한 발음과 어휘력 구비 문항이 중요하게 나타났고, 수업과 관련된 교수기법 영역에서는 수업 지도안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반응, 재미있고 효율적인 수업운영을 위한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 사용, 교재 내용을 학생들의 흥미나 수준에 맞게 창의적으로 바꾸어 사용, 수업 시 학생들이 이해했는지에 대한 관심,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문항을 중요시하였다. 또 이해도 점검 및 평가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응답에 대한 적절한 칭찬 문항이, 상호작용 기술영역에서는 학생과 수업에 대한 열정 및 교사로서의 신뢰,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함이 중요한 문항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자질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항 순위

1. 학생과 수업에 대한 열정 및 교사로서의 신뢰(1.34)

2. 수업 시 학생들이 이해했는지에 대한 관심(1.35)
3.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1.42)
4.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반응(1.42)
5. 재미있고 효율적인 수업 운영을 위한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사용(1.43)
6. 학생들의 응답에 대한 적절한 칭찬(1.49)

위의 본 결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김은주(2002)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업에 대한 열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수업 내용의 이해가 쉬움> 재미있고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의 사용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권미분(2007)은 학생의 이해도 여부와 관심>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성실성과 신뢰성>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반응> 타당도가 높은 평가 제작 순서가 교사의 자질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한편 방영주(2007)의 결과에서는 교사의 언어적인 지식> 영어의 네 가지 능력> 학생의 요구나 필요를 잘 이해> 학생을 공평하게 대우> 내용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순으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함> 학생들의 학습 내용의 이해> 분명하고 효과적 제시> 수업에 열정적인 교사 신뢰 순서로 임여진·김영상(2007)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특히 ‘수업 시 학생들이 이해했는지에 대한 관심’,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반응’, ‘교사의 영어에 관한 지식’ 문항을 교사의 자질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항별 국적별 자질에 따라 각각의 문항에 대한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문항별 국적별 자질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원어민교사가 중요시 여기는 문항

5. 정확한 발음과 어휘력 구비
7. 수업 지도안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
8. 수업의 순조로운 진행 여부 점검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학생의 원어민 선호도와 비교해 보면 원어민교사에게 말하기를 잘 배울 수 있다.> 발음을 잘 배울 수 있다.> 학생들의 응답에 적절한 반응> 협동수업이나 소그룹 활동 선호> 영어 듣기 실력 향상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은 원어민교사에게 영어에 관한 지식 영역을 선호하였고, 원어민교사는 수업과 관련된 교수기법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교사가 중요시 여기는 문항

11. 교재 내용을 학생들의 흥미나 수준에 맞게 창의적으로 바꾸어 사용.
국적별에서는 '수업과 관련된 교수기법'을 교사들은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성별에 따른 자질에서는 아래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 문법 등 영어 체계에 관한 지식(남성)
5. 정확한 발음과 어휘력 구비(남성)
15. 수업 내용에 기초한 타당성 있는 시험 문항 개발(남성)

남성은 1, 5, 15번 문항을 교사의 자질로 중시함을 알 수 있다.

김은주(2002)의 연구에서는 수업에 대한 열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재미있고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 사용> 타당도가 높은 평가의 제작 순서로 났다. 김은주의 연구와 비교하면 남성이 영어에 관한 지식과 타당성 있는 문항개발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연구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 본 연구 결과 학생의 성별 선호도에서 여학생은 ‘원어민에게 발음과 어휘를 잘 배울 수 있고, 읽기 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의 응답에 적절한 칭찬을 한다.’ 는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교사들 역시 영어에 관한 지식 영역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적별에서 원어민교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사의 자질은 다음과 같다. 정확한 발음과 어휘력> 수업 지도안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 수업의 순조로운 진행 여부 점검을 중시하였고, 한국인교사는 교재 내용을 학생들의 흥미나 수준에 맞게 창의적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문항을 교사의 자질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과 경력별 자질에서 ‘수업 지도안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교직 경력 4년 이하와 5-9년, 20-30대가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직 경력이 짧고, 연령이 낮을수록 수업 지도안의 계획에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별 자질에서 초·중학교는 대학교보다 ‘동료 교사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V. 요약

본 논문은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들의 선호도와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원어민 영어교사 자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으로 학생과 교사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영어수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성별 선호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원어민 선호도가 높았는데, 특히 영어에 관한 지식 영역에서 여학생의 선호도가 뚜렷하였고 학교별 선호도에서 고등학생은 발음과 생활 영어, 영어권 문화를 배우는데 원어민교사의 수업이 도움이 되며, 철저한 수업 준비와 다양한 자료 제공, 다양한 수업 방식,

학생 존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고등학생들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어권 국가의 체류경험별에 따른 영어에 관한 지식 영역에 대해서 체류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인 경우가 영어권 국가의 체류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 원어민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별 선호도에서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모든 영역에서 원어민교사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말하기와 발음, 응답을 잘했을 때 적절한 칭찬, 협동수업이나 소그룹 활동을 선호, 듣기 실력을 향상' 순이었다.

영어교사가 교사의 자질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항은 '학생과 수업에 대한 열정 및 교사로서의 신뢰, 수업 시 학생들이 이해했는지에 대한 관심,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반응, 재미있고 효율적인 수업 운영을 위한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 사용' 순서였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문법 등 영어 체계에 관한 지식, 정확한 발음과 어휘력 구비, 수업 내용에 기초한 타당성 있는 문항 개발'을 중시하였고, 연령별과 경력별에서는 교직 경력이 짧고 젊은 연령층이 '수업 지도안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중시하였다.

원어민 영어교사는 한국어에 대한 사용능력과 이해를, 한국인 영어교사는 영어사용 능력 향상을, 학생들에게는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은주. (2002). EFL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영어 교사의 자질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연구*, 14(1), 71-96.
- 김신혜. (2005). 비원어민 교사들의 영어교수학습에 대한 인식. *영어학 연구*, 20, 21-47.
- 김창현. (2009).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권미분. (2007). 대학 원어민 영어 강사의 자질에 관한 연구. *영어학*, 7(3), 411- 438.
- 권미분. (2009). 원어민교수의 수업 질과 학생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세한영어 영문학*, 51(2), 199-218.
- 박민정. (2006). 원어민/비원어민교사의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평가: English only class에서의 비원어민교사의 가능성. *인문학연구*, 12, 65-97.
- 박약우. (2006) 원어민 교사와 내국인 교사의 역할.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회보*, 20, 5-10.
- 박준언, 최춘옥, 최희경, 윤유진. (200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실용영어 학습법 및 체계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방영주. (2007). 효율적인 원어민 영어교사 자질에 대한 인식. *현대영어교육*, 8(3), 341-365.
- 이옥희. (2009).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사에 대한 한국 고등학생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임여진, 김영상. (2007). 영어 교사 자질: 교사 및 학습자 인식. *영어영문학 연구*, 33(4), 205-223.
- 진경애. (2006). 글로벌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 교육 혁신 방안. (연구보고서 CRI 2006-2-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홍성심, 정양수. (2006).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위한 원어민 영어 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50(3), 137-164.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2nd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 Butler, Y. G. (2007). How are nonnative-english-speaking teachers perceived by

- young learners? *TESOL Quarterly*, 41(4), 731-755.
- Duo, P. (2003). *Elementary school english teachers' attitude towar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 Taiw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bington.
- Filho, E. R. (2002). *Students' perceptions of nonnative ESL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est Virginia University, Morgantown.
- Kim, H. (2007). The Korean middle school EFL learners' Perception towards NESTs and Non-NESTs. *English Teaching*, 62(4), 195-220.
- Lasagabaster, D. & Sierra, J. M. (2005). What do students think the pros and cons of having a speaker teacher? In E. Llurda (Ed.), *Non-native language teachers: Perceptions, challenges and contributions to the profession* (1st ed. pp.217-241). New York: Springer.
- Mahboob, A. (2004). *Status of non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 Medgyes, P. (1994). *The non-native teacher*. London: Macmillan.
- Medgyes, P. (1999). *The non-native teacher*(2nd ed.). London: Macmillan.
- Moussu, L. (2006). *Native and Nonnative English-speak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achers: Student attitudes, teacher self-perceptions, and intensive english administrator beliefs and practi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 Norton, B., & Tang, C. (1997). The identity of the nonnative ESL teacher on the power and status of nonnative ESL teachers. *TESOL Quarterly*, 31(3), 577-579.
- Pacek, D. (2005). Personality not nationality: Foreign students' perceptions of a non-native speaker lecture of english at a British university. In E. Llurda (Ed.), *Non-native language teachers: Perceptions, challenges and contributions to the profession* (pp.243-262). New York: Springer.
- Samimy, K. & Brutt-Griffler, J. (1999). To be a native or non-native speaker: Perceptions of non-native students in a graduate TESOL program. In G. Braine (Ed.), *Non-native language teacher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pp. 127-145). Mahwah, NJ: Erlbaum.

〈Abstract〉

Korean EFL Learners' and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n Native Speaker English Teacher

Lee, Young-Yi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Korean EFL learners and English teachers regarding native English speaker teachers (NES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wo fold: to examine the degree of Korean students' preference on NESTs and to analyze the opinions of the Korean EFL teachers and NESTs about the desirable qualities of NESTs.

For this research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to a total of 635 elementary, secondary, and university students. Also 50 Korean EFL teachers and 50 NESTs participated in the questionnaire surveys.

Analysis of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items revealed the following major points. Students valued the NESTs' spoken English ability as the most preferable advantage. Preference for NESTs increased as the students built up confidence in English learning. Also, the students criticised that NESTs generally lack diverse ELT-related professional knowledge. They were also critical of teaching English in English in Korean English classrooms.

Both Korean EFL teachers and NESTs considered teaching-related skills such as passion in teaching, reliability as teacher, concern about students,

sincere response to students' questions, proper reaction to students' demands, using diverse techniques, etc.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for desirable English teachers.

Students felt it necessary for NESTs to have basic Korean language competence to enhance the efficacy of classroom English learning. They also suggested that Korean EFL teachers improve English proficiency for effective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Key Words : native speaker, perception